

한국과 영국인 주부의 삶의 질 비교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British married couple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강사 김갑숙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Jung Ja Ko

Lecturer : Gab Sook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British married couples.

For the data set 136 married couples living in London, Plymouth United Kingdom and 208 married couples living in Pusan, Korea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 SD,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re higher for British married women than Korean married women.

Second, for Korean and British married women,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are higher subjective variables than objective variables.

Third, for Korean married women, wife's level of education, religion, marital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wife's age, and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For British married women, marital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number of children, income and relig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mong the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is the strongest predictor variable.

I. 서론

과거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생활의 편익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등 가치관의 혼란과 더불어 빈부격차,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과거보다 문화적,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삶의 질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인간가치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삶의 질의 세계화」추진계획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 동안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삶의 지표 설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활의 질은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의 두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Olson & Barnes, 1982).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생활상태의 만족감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주관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질 척도는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다 고려하여 연구가 시행되

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선행연구(Campbell et al. 1976; Andrews & Withey, 1976; Berry & Williams, 1987; 고정자·김갑숙, 1996; 박미석, 1996)에서 주관적 척도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 변수 중 결혼만족도 변수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를 사용하여 이 변인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의 현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와 비교 연구를 통해 상대적 평가를 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가치관과 관습, 환경이 다른 서구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환경에 따라 주부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상대적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영국인 주부의 삶의 질 수준 차이를 알아본다.
- 2)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 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의 개념과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이란 시대,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상태로 살고 있으며, 또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 내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공보처, 1995).

Rice & Tucker(1986)는 삶의 질은 물질적인 성취나 비물질적인 성취를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라 하였으며, 김경동과 동료들은(1980)은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와 삶의 목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스스로 경험하는 복지와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미석(1996)은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인간의 안녕과 복지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며,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공보처(1995) 자료에 의하면 삶의 질 지표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삶의 질을 간결하고 정형화된 계량적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을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또 영역에 따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이 기준을 조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A유형(객관적/물질적)은 물질적인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1일 식품소비량, 승용차 보급률, 도로포장 등 1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B유형(객관적/비물질적)은 교육·문화·환경 등 비물질적인 삶의 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영아 사망율, GDP대비 보건의료비 투자율, 교육수준, 도서 및 신문 발행 수,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 20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C유형(주관적/물질적)은 물질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소득, 소비, 물가, 빈곤문제, 주택 등 5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넷째, D유형(주관적/비물질적)은 건강 직업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식품위생, 의료서비스 만족도, 교육의 질, 가정화목, 직업 등 25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공보처, 1995).

Shin(1980)은 Maslow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10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인간복지지수를 작성하였다. 생존유지욕구로부터 소득, 주택, 노동, 보건, 여가 및 오락, 안전의 6가지 척도를 설정하였고, 소속 및 존경의 욕구에서는 사랑과 평등의 두 가지 척도를, 자아실현욕구에서는 자유, 교육의 2가지 욕구를 설정하였다.

Andrew와 Withey(1974)는 삶의 질이 가치차원인 평가기준과 역할차원인 영역과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보고 123개의 생활관심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 여가생활, 가족과의 협조, 건강, 즐거움, 일하는 시간, 직업, 정부, 유효성, 가족, 소비자, 화폐영역의 12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

소연경·문숙재(1983)는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로 가정경제, 건강, 가정관리, 주생활, 식생활, 가족관계, 여가, 교육의 8가지를 설정했으며 이것을 세분화시켜 44가지의 가정생활 질 지표를 설정했다. 고보선·임정빈(1992)은 개인적 측면, 가정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생활영역을 종합하여 식생활, 건강, 교육, 주거환경, 가족관계, 가사노동환경, 여가생활, 경제생활, 친구 및 이웃관계, 지역사회 등 10개의 가정생활영역을 설정하였다.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 하고 이를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및 가족관계의 6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지표로 Olson(1982)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결혼 및 가족, 친구·친척, 건강, 가정생활,

교육, 시간, 종교, 직업생활, 매스컴, 경제생활, 지역 사회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2.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 고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객관적 변수

(1) 연령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고보선·임정빈, 1992; 이종숙, 1989; 박미금, 1994)가 있는 반면, 하재구(1986), Joe & Sally(1988)는 여성이 오히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정자·김갑숙(1996),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이 없었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Campbell 등(1976)은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Palmore & Luikart, 1972; Spreitzer & Synder, 1974; Berry & Williams, 1987).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김경동 등, 1983; 이기영, 1984; 하재구, 1986; 고보선·임정빈, 1992).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소득

소득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아주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Campbell et al., 1976; Andrews & Withey, 1976), Berry & Williams(1987)은 수입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만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

다. Pittman & Lloyd(1988)는 가정수입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재정적 스트레스가 더 뚜렷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Mammen(1980)도 소득적정감이 삶의 질 만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Freedman(1973), Lie(1975)는 소득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영향력이 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김경동 외, 1983; 이기영, 1984; 김종숙, 1989; 김재경·문숙재, 1992; 박미석, 1996). 이기영(1984)은 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경로분석 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 인지도가 높다고 하였다.

(4) 직업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지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으며(김경동 외, 1983; 박미석, 1996;),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도 전문·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남편을 가진 주부가 생산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편을 가진 주부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학력, 수입, 소득을 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로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5) 종교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을 때 삶의 질이 높은 경우(Hadaway, 1978)와 종교가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낮다는 연구(Campbell et al., 1976) 등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라 삶의 질은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종교별 차이는 없었으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종교유무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종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녀수

가정에 살고 있는 자녀수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Pittman & Lloyd, 1988)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으나, Berry & Williams(1987)는 자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도 자녀수는 삶의 질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우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편의 경우는 자녀수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주관적 변수

(1) 남편의 가사참여도

이희정·이숙현(1995)은 남편이 자녀양육을 더 많이 분담할수록 전반적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 참여도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결혼만족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Hirsch & Rapkin, 1986). 특히 Berry & Williams(1987)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정·이숙현, 1995; 박미석, 1996). 이기영(1984)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생활만족에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하였으며, 김영희(1992)의 연구에서도 가족자원이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비교 연구로서 두 나라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과 영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수행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측정도구 작성 후 1996년 7월 중·고생을 둔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6년 11-12월에 걸쳐 부산시내 거주하는 60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방법은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 학생들을 통하여 부모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300부를 배부하였고, 그 외 훈련받은 대학생이 가정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으로 300부를 배부하였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Plymouth에 거주하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1996년 9월 예비조사 실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본 조사는 본 연구자를 포함 하여 실시방법을 훈련받은 6명의 조사자가 영국의 도시지역인 London, Plymouth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설명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48%로 극히 저조하였으며, 그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것을 제외시켰다. 한국의 경우는 442부, 영국은 238부였으나 표본수가 편중되고, 비교 연구의 특성상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를 줄이기 위해 30, 4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은 208부 영국은 13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객관적 변수

객관적 변수로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결혼지속연수, 자녀수, 종교, 직업유무 등을 채택하였다.

2) 주관적 변수

주관적 변수로는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결혼만족도를 적용시켰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남편이 가사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경우 1점, 많이 참여할 경우는 4점을 부여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Olson 등(1982)의 ENRICH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1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한 국 (n=208)			영 국 (n=136)		
	구 분	빈 도	백분율	구 분	빈 도	백분율
부인 연령	30대	109	52.4	30대	82	60.3
	40대	99	47.6	40대	54	39.7
부 인 학 력	중학교 이하	29	12.6	GCSE	40	32.8
	고등학교	98	47.3	A level	40	32.8
	전문대학	12	5.8	Vacational diploma	19	15.6
	대학교 이상	71	34.3	University degree	23	18.9
월 평 균 소 득	150만원 미만	42	20.2	600 pound 미만	16	13.4
	150-200만원	57	27.4	600-1000 pound	32	26.9
	200-300만원	74	35.6	1000-1500 pound	26	21.8
	300-400만원	19	9.1	1500-2000 pound	22	18.5
	400만원 이상	16	7.7	2000 pound 이상	23	19.3
자 녀 수	1명 이하	26	12.5	1명 이하	66	36.1
	2명	124	59.6	2명	74	40.4
	3명 이상	58	27.9	3명 이상	43	23.5
결 혼 지 속 년 수	5년 이하	3	1.4	5년 이하	35	25.7
	6-10년	42	20.2	6-10년	30	22.1
	11-15년	72	34.6	11-15년	20	14.7
	16-20년	79	38.0	16-20년	24	17.6
	21-25년	12	5.8	21-25년	14	10.3
	26년 이상			26년 이상	13	9.6
남편 가사 참여도	하지 않음	24	11.5	하지 않음	17	12.8
	안 하는 편	46	22.1	안 하는 편	66	49.6
	조금 함	109	52.4	조금 함	40	30.1
	많이 함	29	13.9	많이 함	10	7.5
종교 유무	있다	170	81.7	있다	110	85.3
	없다	38	18.3	없다	19	14.7
직업 유무	있다	104	50.0	있다	110	81.5
	없다	104	50.0	없다	25	18.5

* 빈도 합계가 다른 것은 missing data 에 의한 것임.

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분석 결과 한국 영국 모두 $r=.40$ 이상으로 나타나 11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은 cronbach $\alpha=$

.88, 영국은 .94로 높게 나타났다.

3) 삶의 질

Olson &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를 수정하여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삶의 질 하위영역은 가족, 친구·친척, 건강, 가정생활, 교육, 시간, 종교, 매스컴, 경제, 지역사회, 직업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 중 직업생활에 관한 내용은 무응답이 많아 직업생활에 대한 2문항을 제외시키고 3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한국, 영국 모두 $r=.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은 .93, 영국은 .98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삶의 질에 대한 수준 및 국가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test를 하였다. 둘째,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으며, 셋째 인과모형 검증은 위해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국, 영국 기혼여성들의 삶의 질 수준 차이

한국과 영국의 기혼여성들이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M=2.96, 영국인은 M=3.31로 한국 여성들의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김경동(1983)의 연구결과(11점 척도 중 4.8)보다는 약간 높으나, 노유자(1988), 고정자·김갑숙(1997)의 연구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공보처의 연구에 의하면 선진 8개국의 주관적 비물질적 지표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대비하였을 때 우리의 수준은 54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한국 영국의 삶의 질 수준 차이

영역	한국 M	영국 M	t 값
가족	3.86	3.90	-.50
친척·친구	3.46	3.63	-2.10*
건강	3.15	3.51	-4.08***
가정생활	3.03	3.48	-5.76***
교육	2.81	3.26	-5.10***
시간	2.85	3.26	-4.85***
종교	3.18	3.29	-1.36
매스컴	2.83	3.00	-2.31*
경제	2.92	3.20	-3.15**
지역사회	2.73	3.33	-8.76***
전체	2.96	3.31	-6.21***

* P<.05 ** P<.01 *** P<.001

영국인의 경우는 중간점 이상으로 대체로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ndrew가 개발한 7점(삶의 즐거움 1점)척도를 이용하여 Bubolz와 Eicher이 생활의 질을 조사한 결과 2.9점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 영국 모두 가족영역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영역, 종교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한국과 영국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의 기혼여성들이 영역별로 영국인 보다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한국인의 경우 가족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척·친구, 건강영역의 순이었고, 지역사회, 교육, 매스컴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최근 잇달은 대형사고와 산업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고 후에도 여전히 안전의식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점은 계속되는 교육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은 혼란과 높

은 교육열로 인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액과외 및 사교육비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 영국인의 경우는 가족, 친척·친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매스컴, 경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점은 고등학교 학생수로 비교한 교육의 수준이 환산점 66으로(한국 124)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선진 8개국과 비교해 볼 때(공보처, 1995)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적 부문에서도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 8개국과 비교했을 때 낮았으며, 높은 물가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수, 종교유무, 직업유무 등을 객관적 변수로 하고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결혼만족도를 주관적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중 명목변수로 된 종교유무와 직업유무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있다=0, 없다=1).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결혼지속연수는 한국의 경우 $r=.76$ 으로 서로 상관이 높아 결혼지속연수를 제외하고 주부의 연령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한 결과 그 값이 1.56에서 2.22 사이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분석자료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객관적 변수 중 주부의 교육수준($\beta=.187$)과 종교($\beta=-.173$) 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4.7%였다. 즉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들 변수에 주관적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육수준($\beta=.125$), 종교유무($\beta=-.117$), 결혼만족도($\beta=.575$)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1.7%의 증가를 보여 총 설명력은 46.4%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들(김경동 외, 1984; 이기영, 1984; 하재구, 1986; 노유자, 1988; 고보선·임정빈, 1992)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자체가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키므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최규련, 1987) 우리 나라의 경우 학력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그리하여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종교는 종교가 있을 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희정·이숙현(1995), 박미석(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영국의 경우는 객관적 변수 중 자녀수가($\beta=-.291$)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14.7%였다. 이는 자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Berry & Williams(1987)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수가 생활만족도에 관련된다는 Pittman & Lloyd(1988)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변수에 주관적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녀수 변수는 상쇄되고 결혼만족도 변수($\beta=.383$)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이 변수의 설명력은 28%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의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 영국 모두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는 객관적 변수보다는 주관적 변수인 결혼만족도 변수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한국		영국	
	객관적 변수 β	주관적 변수 β	객관적 변수 β	주관적 변수 β
주부연령	-.133	-.060	.117	.102
주부 교육수준	.187*	.125*	.032	.000
월평균 소득	.122	.094	-.038	-.163
자녀수	.116	.068	-.291**	-.194
종교 유무	-.173*	-.117*	-.205	-.158
직업 유무	.085	.079	-.095	-.113
남편 가사참여도		.011		.019
결혼만족도		.575***		.383***
회귀상수	118.216	59.016	129.302	93.446
R ²	.147	.464	.147	.280
F 값	5.72***	21.308***	2.417*	3.800***
D-W 계수	2.04	2.07	1.88	1.60

* P<.05 ** P<.01 *** P<.001

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자녀수, 종교 유무, 직업유무 등 객관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 변수인 남편 가사참여도와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표 4〉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가사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유무($\beta=-.202$)였다. 즉 주부가 직업이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과 직업의 다중역할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남편에 대한 가사참여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거보다는 남편들의 가사 참여율이 높다고는 하

나 부부간의 가사역할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부의 직업유무 자체뿐 아니라 남편의 지지도와 남편의 성역할 태도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변수는 가사참여도 외 결혼만족도나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유무 보다는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등 상황적 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 연령($\beta=-.143$)과 남편의 가사참여도($\beta=.284$) 변수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2.8%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어리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최규련(1987)의 연구에서도 30대가 가장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이정숙, 1990; 최규련, 1993; 김경신·김오남, 1996)와도 일치하였다.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만족도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6.4%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결혼만족도는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나 가족자원이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김영희(199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의 주부의 연령과 가사참여도 변수는 결혼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의 연령이 어리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이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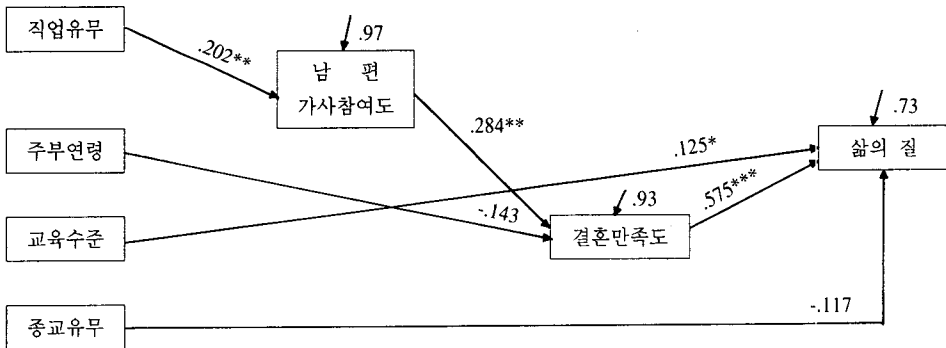
이들 변수들의 총 인과효과를 비교해 보면〈표 5〉에서와 같이 결혼만족도($\beta=.575$)가 가장 크며, 다음은 남편의 가사참여도($\beta=.163$), 교육수준($\beta=.125$), 종교유무($\beta=-.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표 5〉, 〈그림 2〉 참고) 가사참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beta=-.245$)였다.

〈표 4〉 변수들이 가사참여도, 결혼만족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한 국			영 국		
	가사참여도 β	결혼만족도 β	삶의 질 β	가사참여도 β	결혼만족도 β	삶의 질 β
주부연령	.048	-.143*	-.060	.075	.084	.102
주부 교육수준	.116	.070	.125*	-.097	.064	.000
월평균 소득	-.106	.084	.094	.105	.239*	-.163
자녀수	-.018	.085	.068	-.245*	-.249*	-.194
종교 유무	-.014	-.096	-.117*	.000	-.208*	-.158
직업 유무	-.202**	.071	.079	-.183	.029	-.113
남편 가사참여도		.284***	.011		.117	.019
결혼만족도			.575***			.383***
회귀상수	2.44	3.31	59.016	2.403	3.19	93.446
R ²	.051	.128	.464	.132	.217	.280
F 값	1.79	4.180***	21.308***	2.375*	3.607**	3.800***
D-W 계수	2.02	2.21	2.07	2.09	2.00	1.6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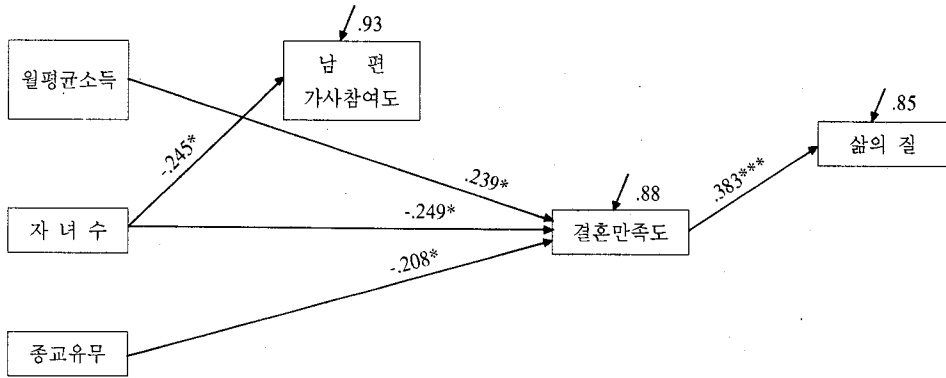


〈그림 1〉 인과모형 (한국)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거나 적을 때 부부로서의 애정적이고 동반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소득($\beta=.239$), 자녀수($\beta=-.249$), 종교유무($\beta=-.208$)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7%였다. 즉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

우에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 Berry & Williams (198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나 자녀수 보다는 자녀유무가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미령, 1988). 본 연구에서 영국의 경우는 자녀수가 없는 가정이 다소 있어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녀



〈그림 2〉 인과모형 (영국)

〈표 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변 인	한 국			영 국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주부의 연령	.082	-	.082	-	-	-
주부의 교육수준	.125	.125	-	-	-	-
자녀수	-	-	-	-.095	-	-.095
월평균소득	-	-	-	.092	-	.092
직업유무	-	-	-	-	-	-
종교유무	-.117	-.117	-	-.080	-	-.080
남편 가사참여도	.163	-	.163	-	-	-
결혼만족도	.575	.575	-	.383	.383	-

유무,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삶의 질에는 결혼만족도($\beta=.383$)변수만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 변수의 설명력은 28%였다. 이는 Berry & Williams(1987)가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beta=.47$)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수, 가족수입,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소득, 자녀수, 종교유무로 결혼만족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 영향을 미쳤다. 즉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

으며 이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변수들의 총 인과효과를 비교해 보면(표 6) 결혼만족도($\beta=.383$)가 가장 크며, 다음은 자녀수($\beta=-.095$), 월평균소득($\beta=.092$), 종교유무($\beta=-.080$)순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해 보고,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차이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

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주부들의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2.96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인 주부는 3.31로 한국 주부들의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둘째,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객관적 변수 중 주부의 교육수준과 종교유무가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14.7%였다. 주관적 변수를 첨가했을 때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만족도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6.4%였다. 영국의 경우는 객관적 변수 중 자녀수만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14.7%였으며, 주관적 변수를 첨가했을 때는 결혼만족도 변수가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28%였다.

셋째, 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만족도 이었으며, 그 외 주부의 연령과 남편의 가사참여도 변수가 결혼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경우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 변수였으며 그 외 자녀수, 월평균소득, 종교유무가 결혼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한국 영국의 비교 연구에서 양국간의 공통점은 주관적 변인이 객관적 변인보다 삶의 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 개인의 만족도는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Strumpel(1973)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은 결혼만족도 변인으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한국 영국 두 나라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수준으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의 고학력 지향주의와 개인의 능력위주가 아닌 학력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회실정을 잘 반영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영국의 경우는 수입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최근의 경우 수입자체의 객관적 변수보다는 소득 적정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Mammen, 1980; 이기영, 1984)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변수를 적용시켜 이에 대한 관계를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영국의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경우 자녀가 없는 주부가 한국보다 많아 이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자녀 연령,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국은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진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주부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 경제부문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 영국 모두 객관적 변수보다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변수로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결혼만족도 변수만을 적용시켰으므로 삶의 질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변수들 중 결혼만족도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경우는 남편의 가사참여도 변수가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부부 상호간에 역할을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남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적 측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점에서 우리 나라보다 선진국 대열에 있는 영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영국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보다 낮았으며, 자녀수가 작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이혼, 재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영국의 경우는 주부 연령과 결혼지속연수와의 상관(한국 $r=.76$, 영국 $r=.52$)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재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혼, 재혼상태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서방세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와의 비교 연구도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고정자·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2.
- 공보처(1995). 세계일류로 가는 길 -21세기 삶의 질 지표-.
- 김경동·이흥구·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 논총*, 461-499.
-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석(1996). 중년기 남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4.
- 소연경·문숙재(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43-53.
-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안선영(1988).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이정숙(1990). 기혼 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 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rews,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Feb.), 107-116.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Hadaway, C. K.(1978). *Life satisfaction and religion*

- :An analysis. *Social Forces* 57, 636-643.
-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53-67.
- Lie. B.(1975). Quality of life : Concept, measure an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4(1), 1-13.
- Olson. D. H. & Bare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Pal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Spreitzer, E. & Snyder, E. 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 Vannoy, D. & Philliber, 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2), 387-398.